

치열한 자기성찰과 삶의 인식

신영복 지음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사상, 신념만의 이유로 투옥·구금되어 있는 사람’이란 뜻의 ‘양심수’라는 말이 이 사회에서 일상어처럼 굳어진 지도 오래되었다.

신영복씨도 반공과 안보라는 괴물의 희생자로서, 1968년의 이른바 ‘통혁당 사건’에 연루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여를 복역하다 88년 8월에 가석방된 ‘양심수’이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헛빛, 88)은 20년여의 징역살이 동안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순한 편지뿐만 아니라 치열한 자기성찰과 삶에 대한 깊은 인식을 담고 있다. 이 글들은 감힌 공간 안에서 항시 열린 정신을 유지하고자 분투하는 치열한 자기검열이며, 사물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동시에 기존의 가치들에 대한 재정립이며, 이웃과 가족에 대한 따사로운 사랑이며, 동양 고래의 사상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며, 감옥의 사회학이며, 자유에의 절절한 갈망 그 자체이다.

시종 나를 놀라게 하는 것은, 아니 숙연하게 만드는 것은 차갑고 좁은 감옥의 벽을 뛰어넘는 그의 고결한 사색의 깊이이며 치열한 자기부정이다. 갇힌 공간과 규제된 생활이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사고의 정체와 판단력의 퇴보와 인식의 담보를 과감히 뿌리치고 끊임 없이 자신을 성장시키려는 치열한 투쟁이 감동적이다.

이웃과 가족에 대한 자상한 애정이 인상적이거나, 특히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근심의 절절함은 ‘한 아들의 어머니라는 모정의 한계’를 뛰어넘어 모두가 공유하는 ‘삶의 진실과 역사성에의 깨달음’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곳곳에서 드러나는 그의 변증법적 사고나 우리의 역사, 우리의 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도 간과할 수 없고, ‘민족적 전통’과 ‘봉건적 한계’를 동시에 지닌 書道에의 뜨거운 애정과 충실한 복무 또한 매우 인상적이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슴을 아프게 했던 것은 ‘수재민의 재난과 불행’까지도 동경하게 하는 자유에의 치열한 갈망이었다. 징역살이에서 느끼는 불행 중의 하나가 실천과 인식의 괴리와 그로 인한 인식의 좌절, 사고의 정지에 있다고 한 점에서 드러나듯, 아무리 관념이 자유롭다 해도 신체가 구속받는 한 객관적·현실적 조건은 여전히 제약될 수밖에 없고, 절망을 포함하는 ‘절름발이’식 자유로 머물수밖에 없음을 알게 된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은 더 이상 편협한 반공주의나 통치이데올로기가 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통제하고 재단하는 폭압이 자행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을 일깨워주었다.

이 땅의 민주화를 열망하다 영어의 몸이 된 모든 양심수들이 감옥으로부터 해방되어 튼튼한 ‘실천적 연대’로 맺어질 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꽃피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

김상현

충북 청원군 미원면 미원5구 593·대학생

새로운 「문예비평용어사전」 구상

원고지 9천장, 2천여 항목 망라

현재 국내에는 몇 종의 「문예비평용어사전」이 있다. 비교적 최근의 것으로는 이명섭의 「世界文學批評用語事典」(1985)이 있고, 이상섭의 다소 독특한 「文學批評用語事典」(1975)과 김윤식의 동일한 책명이 1976년도에 출간되었다. 이 세권이 비교적 독자들의 접근이 용이하다고 믿는 책들이다.

따라서 이들 세권의 사전이 사전으로서의 구실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몇몇 문학평론가나 대학원생 또는 교수들과 상의해 보아도 그 답변은 시원치 않은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그 책들이 갖는 폭좁음과 사전으로서의 기능이 엇비슷해서 정작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물론 편저자들의 노고를 과소평가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아니 그들의 편찬작업으로 인해 문학기 전반에 적지 않은 공헌을 했다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필자의 견해는 부정적이다. 그 이유를 들어보겠다.

첫째, 기존의 사전은 M.H.Abrams의 A Glossary of Literary Terms(1957)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

둘째, 현재 가장 방대한 책은 프린스턴대학에서 나온 Princeton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1973)인데, 이 저서는 전문학자 수백명이 동원되어 각자 자기 전공에 합당한 주제(특히 詩學에 관하여)에 대해 명확한 개념과 함께 개념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객관적 입장에서 조명해 주었다는 점에서 단연 학문적 깊이를 충분히 인식시켜 준다.

세계, 기존의 사전이 지나치게 서양의 것만을 수록하고 동양(특히 중국과 한국)의 중요한 개념을 전혀 수록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

셋째, 현재의 사전에 나와 있는 개념, 예컨대 ‘자연주의, 낭만주의, 플롯, 모더니즘, 로망스, 비극, 고전주의, 아이러니, 소극, 부조리문학’ 등 핵심적인 개념들에 대한 설명이 전혀 미흡하다는 점이다. 가령 ‘자연주의’라는 개념이 있다면 적어도 30여개의 상호연관된 항목이 용어와 그에 대한 해설이 붙여져야만 할 것이다.

이상에서 지적한 방향은 현재 필자가 하고 있는 작업과 같다. 필자는 일단 국내외의 연구서와 번역서 및 연구 논문 등으로부터 자료를 정리하였고, 가장 정평있는 「프린스턴 시학사전」을 전부(한쪽은 부분역도 있지만) 번역하여 그것을 현재 나와 있는 기존 사전의 용어개념과 비교대조함으로써 합당한 내용을 주로 하여 편찬작업을 하고 있다. 일차적인 작업은 200자 원고지 9천장 분량으로 1월 중순까지는 가능할 것이며, 수정 및 보완 작업이 2월말까지면 끝날 것 같다. 때문에 현재 사전에 나와 있는 항목(예컨대 이명섭의 530개)보다 적어도 4~5배 정도는 될 것이며, 그 내용 전개방식도 공식적·통시적 방법을 두루 원용하여 가장 독특하고 참신한 면모를 갖춘 새로운 사전을 내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원중

충남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회장단 直選’ 정관개정안 다뤄

出協 정기총회, 1월 26일 개최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권병일) 제41차 정기총회가 오는 1월 26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이번 총회는 그동안 쟁점이 돼왔던 회장단 간선제를 직선제로 고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정관개정안을 다룰 예정이어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회원출판사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출협 이사회가 결의, 총회에 상정한 정관 개정안에 따르면, 종래 이사회에서 호선하던 회장단(회장 1인, 부회장 3인) 및 감사(3인)를 총회에서 회원의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하고, 이사는 종래와 같이 총회에서 뽑힌 전형위원(9인 이내)이 선출하되 회장단 및 전형위원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이사 정수(71인 이내) 중 10명은 회장의 제청에 의

해 이사회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그 대신 종래에 없던 ‘임원의 자격’ 규정을 신설, △회장은 8년 이상의 이사경력자 △부회장은 6년 이상의 이사경력자 △이사·감사는 회원자격 취득 5년 이상자 △전형위원은 4년 이상의 이사경력자 등으로 자격을 엄격히 제한했다.

한편 ‘명예임원제’도 신설, 명예회장 1인, 고문 약간명 외에 20인 이내의 ‘원로자문위원’을 두되, 원로자문위원은 ‘협회의 육성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결의로써 추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출판사의 신규등록이 급증한 현실을 감안, ‘회원가입 자격’을 ‘3년간 계속해서 신간 10종 상당의 출판물을 간행한 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로 요건을 강화했다.

정관의 변경은 의무이행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90년도 정기총회에서부터 새 회장단을 직선하게 된다.